

보안업계, 어린이집 CCTV 특수

국내 보안업체들이 '어린이집 특수 잡기'에 분주하다. 아동폭력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전국 4만3763개 어린이집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1만3822곳으로 설치율이 30%에 그친다.

9월 CCTV 설치 의무화 에스원·ADT캡스·KT텔레캅 20~30% 싼 패키지상품 출시

보안업계에서는 CCTV 설치 등 어린이집 신규 수요 규모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업체들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패키지형 상품을 내놓고 어린이집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에스원은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고 분석해 알람까지 해주는 지능형 CCTV '에스원 SVMS(지능형 영상감시솔루션)'를 선보였다. SVMS엔 영상분석 알고리즘을 탑재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넘어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경우, 혹은 낯선 이가 침입하거나 불이 나는 등 14가지 상황이 발생하

면 자체적으로 분석해 알려준다. 사광호 에스원 상품기획팀장은 "어린이집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능형 CCTV를 통해 폭력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 투자금이 부담스러운 어린이집을 위해선 패키지 상품을 렌탈 서비스로 제공한다. 울초 '어린이집 CCTV 패키지'를 내놓은 ADT캡스는 최근 서울, 경북 등의 어린이집협회와 제휴를 맺는 등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ADT캡스의 어린이집 CCTV 패키지는 고화질(HD) 영상을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녹화된 영상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으며 두 달 동안 보존된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문 보안 요원이 출동하는 서비스와 자동 탐지, 원격 관리, 정기 점검까지 어린이집에 필요한 보안 서비스를 모두 묶었다. KT텔레캅의 어린이집 전용 CCTV '키즈뷰'는 기존 CCTV보다 25% 싸다. 키즈뷰를 설치한 어린이집엔 인기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 제작사인 로이비주얼과 함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메디라이스 '초간편 즉석 취사기'

본체에 쌀·물 보관... 버튼만 누르면 밥짓기 끝

함용승 메디라이스 사장은 몇 년 전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회의가 길어져 점심을 걸렀다. 커피 한 잔으로 허기를 달래기 위해 자판기 앞에 섰던 함 사장은 문득 '자판기에서 밥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곧바로 연구에 착수했다. 3년간 10억원가량을 투자해 지난해 말 '초간편 즉석 취사기'를 내놨다. 자판기의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내려지듯 이 제품의 버튼을 누르면 쌀과 물이 나와 밥이 지어진다. 회사명 메디라이스(MediRice)는 '보약과 같은 밥'이란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게 함 사장의 설명이다.

넣어 밥을 지을 수도 있다. 생김새와 디자인은 커피메이커와 비슷하다. 본체에 쌀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쌀통이 따로 필요 없고 취사 과정에서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세척은 내출만 꺼내서 씻으면 된다. 함 사장은 "쌀을 불리거나 밥솥에 물을 따로 맞출 필요가 없다"며 "자판기와 밥솥을 접목해 만든 최초의 제품"이라고 말했다.

커피자판기에서 아이디어 1~2인 가구 많은 日 공략 정수기 기능 제품도 개발

◆3년간 10억원 투자해 개발
제품 원리는 간단하다. 본체에 쌀과 물을 미리 넣어뒀다가 취사 버튼을 누르면 된다. 쌀과 물이 정해진 분량만큼 밥솥으로 쏟아져 취사가 시작된다. 취사 20분, 뜸들이기 15분이 지나면 밥이 다 됐다. 밥이 울린다. 성인을 기준으로 1~2인분의 취사가 가능하다. 쌀 외에 잡곡 등 다양한 식재료를

◆틈새 노린 아이디어 상품
초간편 즉석 취사기는 싱글족이나 신혼부부, 노년층 등 1~2인 가구를 겨냥했다. 회사 내 탕비실이나 휴게실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틈새 상품'이다. 함 사장은 "별도의 준비 작업 없이 즉석에서 신속하게 밥을 할 수 있다"며 "제품의 크기가 작아 설치가 편리하다"



함용승 메디라이스 사장이 경기 분당 사무실에서 '초간편 즉석 취사기'로 지은 쌀밥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기자

고 말했다. 제품은 조만간 출시되며 가격은 35만원이다. ◆냉·온수 나오는 취사기 개발 나서 함 사장은 취사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취사기에 정수기 기능을 접목해 냉·온수까지 나오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커피자판기 기능도 합칠 예정이다. 발아현미 쌀 등 다양한 기능성 쌀 생산업체 등과 제휴를 맺고 쌀과 취사기를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방침이다.

개발 단계부터 일본 시장을 염두에 뒀다. 일본의 기능성 쌀 시장은 국내보다 몇십 배가량 크다. 제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1~2인 가구

도 많다. 일본 외에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등의 현지 업체와도 수출 계약을 논의 중이다. 김정은기자 hikiemile@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우림의

형광등용 리필 반사경 (031)713-1640 △메디라이스의 초간편 즉석 취사기 (031)703-7595 △라비오의 이엔해피 정형베개 스마트 1588-8320 △코비스의 마이젠 (031)323-1612

WIS WORLD IT SHOW 2015

의료/교육 등 IT융합기술

모바일 디바이스/웨어러블

IoT (사물인터넷)

모바일 기반 서비스/콘텐츠 (핀테크 등)

5월 27일(수) ~ 5월 30일(토) / coex A,B,C Hall

MOBILE	IT CONVERGENCE	CLOUD COMPUTING	COMMUNICATIONS
DRONE	BIG DATA	BROADCASTING	IT SERVICE
SOFTWARE	DIGITAL CONTENTS	INDUSTRIAL ELECTRONICS	

관람시간 안내

1 비즈니스 관람 (Business Day)
5월 27일(수) ~ 5월 29일(금) / 10:00~17:00
참가업체와 바이어간 교류 및 상담 진행을 위해 월드IT쇼 사무국이 지정된 날로, 고등학생 이하(고등학생을 포함)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일반관람 (Public Day)
5월 30일(토) / 10:00~16:00
고등학생 이하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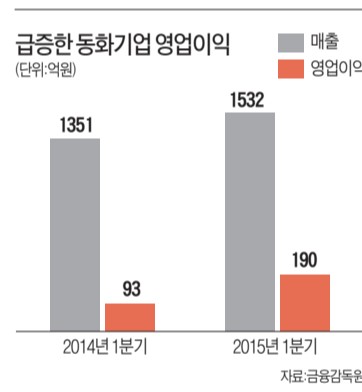
WWW.WORLDTSHOW.CO.KR를 검색하세요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경제신문
진지신문
KITA
coex
K.FAIRS LTD.
KAIT

동화기업, MDF 투자 확대로 성장 가속화

(중빈도섬유관)

동화기업이 영업이익률 40%에 육박하는 베트남 중빈도섬유관(MDF)공장 증설에 나선다. 아시아 최대 중빈도섬유관단지인 '엠파크' 제2단지도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력사업인 목재와 중빈도 자동차사업의 성장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흥진 동화기업 사장은 25일 "계열사 통합과 효율화를 통해 작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1분기에는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며 "하반기부터는 주력사업의 성장 가속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고차 동차 거래 사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동화기업은 현재 인천 가좌동에 '엠파크'란 이름으로 중고차 매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 목재공장이 있던 자리에 들어섰으며 연간 거래규모는 5000억원 수준이다. 인천지역 중고차 거래의 50%가량이 이곳에서 이뤄진다. 동화기업은 엠파크를 인천뿐 아니라 전국 중고차 거래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목표에 따라 하반기 중 인근에서 제2단지 건설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2단지는 내년 10월께 완공할 예정이다. 이 단지가 완공되면 엠파크에서 이뤄지는 중고차 거래는 연 1조원을 이를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동화기업은 1분기 매출 1533억원, 영업이익 191억원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1분기가 목재분야 비수기임에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13% 늘고, 영업이익은 103% 급증했다. 이런 성장을 이끈 것은 베트남 법인이다. 현지 수요 증가로 1분기 매출 250억원에 영업이익 9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39%에 달했다. 국내의 축적된 기술을 현지공장에 접목해 2년 만에 베트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덕분이다.

동화기업은 수요가 늘고 있는 베트남 시장을 겨냥해 현지 공장을 지금의 두 배 규모로 증설하는 방안을 하반기 중 확정한다. 김 사장은 "해외에서 베트남 공장 증설 외에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제2단지 건설에 필요한 시설자금 700억원은 외부에서 조달해 재무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동화기업은 중고 자동차 거래 사업 확대를 위해 할부금융사업에 진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엠파크에서 중고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김용준기자 junyk@hankyung.com

LG하우시스, 스마트폰으로 여닫는 창호 출시

투명·불투명 모드 자동 전환 방법알람 기능도 갖춰

LG하우시스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폰으로 창호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 시대를 열었다. LG하우시스는 창의 개폐는 물론 방범 알람, 환기, 채광 조절 등의 모든 기능을 스마트폰에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윈도우'(사진)를 출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스마트 윈도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실내 어디에서나 창을 여닫을 수 있으며 외출 중에



도 개폐 상태를 확인한 뒤 제어할 수 있다. 창이 강제로 열릴 경우 즉시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방법알람 기능을 갖춰 생활의 안전성도 높였다. 스마트 윈도우는 사용자 조작에 따

라 유리 색상이 투명·불투명 모드로 전환된다. 별도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사생활 보호 및 채광 조절이 가능하다. 김희경기자 hkkim@hankyung.com